

【 2017.4.26(수) 강원도민일보 】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도회장 오인철)는 25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회원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2017.4.26(수)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제59회 정기총회 개최...산업구조 혁신·수익성확보 진력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가 선제적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25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제59회 정기총회(사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도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산업구조 혁신 △공사 수익성 확보 △신건설수요 창출 △회원 경영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회는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사의 내실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인철 도회 회장은 “갈수록 줄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물량과 비현실적 공사원가로도 건설업계가 수주난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모두의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각종 건설 규제 및 제도개선이 조속히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인철 도회 회장 중심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